

여자농구 '최고의 별' 김단비...생애 첫 MVP 수상 '5관왕'

기자단 투표 총 110표 중 107표 획득

신인상은 데뷔 2년차 하나원큐 박소희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의 올 시즌 정규리그 1위를 이끈 베테랑 김단비(33)가 생애 첫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았다.

김단비는 6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신한은행 SOL 2022~2023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MVP를 수상했다.

기자단 투표 총 110표 중 107표를 받았다. 데뷔 16년 만에 생애 첫 MVP 수상이다.

김단비는 "이상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너무 기쁘다. 우리은행을 지원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16년 전에 숯도 하나 제대로 못 쏘고 수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몸만 좋은 선수였다. 그런 선수를 한 팀의 에이스로 만들어준 위성우 감독님, 그때 정말 힘들었다. 그걸 이겨낸 것도 대단하다"고 웃으며 "그때 가르침 덕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위성우 감독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신한은행에서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존재하는 걸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했다.

김단비는 정규리그 30경기에 모두 출전해 평균 31분55초를 뛰며 평균 17.17점 8.8리바운드 6.1어시스트 1.5스틸 1.3블록슛을 기록하며 팀을 정규리그 1위로 이끌었다.

주요 지표에서도 득점 2위, 리바운드 5위, 어시스트 2위, 스틸 1위, 블록슛 1위, 공헌도 1위 등 상위권에 자리했다.

또 이번 시즌 트리플더블을 세 차례 기록했고, 라운드 MVP도 3회 수상했다.

김단비는 MVP를 비롯해 베스트5, 블록슛(1.30개), 맑은기술 윤덕주상(통계상), 우수수비선수상을 차지하며 5관왕에 올랐다.

WKBL 역대 7번째 정규리그 시상식 5관왕이다. 최다 다관왕은 박지수(KB국민은행)로 2020~2021시즌, 2021~2022시즌 7관왕에 오

른 바 있다.

2007~2008시즌 신한은행에서 데뷔한 김단비는 데뷔 첫 시즌부터 2011~2012시즌까지 5회 연속 통합 우승을 경험했다.

당시엔 전주원, 정선민, 최윤아, 하은주 등 경쟁한 선배들을 돕는 조연이었다.

하지만 팀의 중심이 된 이후엔 우승과 인연이 없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1위도 2011~2012시즌 이후 무려 11년 만이다.

부천 하나원큐 박소희는 생애 한 번뿐인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기자단 투표 110표 중 106표를 받았다.

분당경영고 출신으로 2022년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입단한 박소희는 이번 시즌 26경기에 출전해 평균 4.42점 1.9리바운드를 기록했다.

박소희는 "이번 시즌 치르면서 신인상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살면서 단 한 번뿐인 값진 상 받아 영광"이라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단장님, 국장님, 감독님과 코치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도원)감독님한테 혼날 때마다 옆에서 괜찮다고 위로해준 언니들과 동기(사)예원이, 뒷바라지해준 부모님과 팬분들에도 감사하다. 이 상을 받기에 부족하지만, 다음 시즌엔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신한은행 김소니아는 득점상(18.87점)을 차지했다.

리바운드상(10.60개)은 부산 BNK 진안에게 돌아갔다. 2015~2016시즌 데뷔 후 7년 만에 첫 수상이다.

진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BNK 이소희는 3득점상(평균 2.57개 77개)을, 우리은행 최이솨는 3점아투상(37.93%), 우리은행 박지현은 2점아투상(55.32%), 제주 KB국민은행 강이슬은 자유투상(88.42%)을 받았다.

BNK 안혜지는 어시스트상(9개)을 차지했

◇2022~2023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수상자

- ▲최우수선수=김단비(우리은행)
- ▲신인선수상=박소희(하나원큐)
- ▲베스트5=김단비, 박지현(이상 우리은행), 이소희(BNK), 김소니아(신한은행), 배혜운(삼성생명)
- ▲지도자상=위성우(우리은행)
- ▲식스우먼상=김애나(하나원큐)
- ▲우수수비선수상=김단비(우리은행)
- ▲기량발전상=강유림(삼성생명)
- ▲모범선수상=김지영(하나원큐)
- ▲최우수심판상=김민석
- ▲윤덕주상=김단비(우리은행)
- ▲특별상=한채진(신한은행)
- ▲득점상=김소니아(신한은행)
- ▲어시스트상=안혜지(BNK)
- ▲리바운드상=진안(BNK)
- ▲블록슛상=김단비(우리은행)
- ▲스틸상=김예진(하나원큐)
- ▲2점아투상=박지현(우리은행)
- ▲3득점상=이소희(BNK)
- ▲3점아투상=최이솨(우리은행)
- ▲자유투상=강이슬(KB국민은행)
- ▲프린트상=부산 BNK
- ▲티켓링크상=제주 KB국민은행



6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한은행 SOL 2022~2023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정규리그 MVP, BEST5 포워드 부문, 우수수비선수상, 맑은기술 윤덕주상, 블록슛상을 수상한 우리은행 김단비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규리그 시상식에는 2018~2019 시즌 이후 4시즌 만에 6개 구단 전 선수들이 참석했다. 뉴스

한국대표팀 '플랜B'였던 오지환, WBC 유격수로 명예회복 얻나

3루수 최정 컨디션 난조

'플랜B'에 그쳤던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대표팀 오지환(LG 트윈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오지환은 6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리는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공식 평가전에 9번 유격수로 선발 출격했다.

당초 '백업 멤버'로 분류됐던 오지환의 선발 출전은 3루수 최정(SSG 랜더스)의 컨디션 난조 여파다.

지난달 미국 애리조나에서 대표팀의 훈련을 소화한 최정은 최근 컨디션이 떨어졌다. 지난 2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대표팀과 SSG 2군 연습경기에도 나오지 않고 휴식을 취했다.

문제는 대표팀에서 3루수가 주 포지션인 선수는 최정뿐이라는 점이다.

최정이 3루를 비우면서 이강철 대표팀 감독은 '3루수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하성은 대표팀의 주전 유격수로 낙점된 내야수지만 3루와 2루도 두루 볼 수 있다. 메이저리그 데뷔 첫 해였던 2021년 3루수로 23경기를 소화하기도 했다.

김하성이 3루수로 이동하면서 유격수는 오지환이 책임지게 됐다.

오지환은 메이저리거인 김하성의 뒤를 받칠 계획이었지만, 내야사령관으로 책임이 더 커졌다.

페이스는 나쁘지 않다.

오지환은 애리조나 캠프에서 진행된 대표팀의 4차례 연습경기에서 10타수 3안타 1타점을 작성했다. 지난 3일 SSG 2군과 연습경기에서는 4타수 3안타 3타점을 뽑아냈다.

5번의 연습경기에서 타율 0.429(14타수 6안타) 4타점을 때려내며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했다.



WBC 대표팀 오지환이 5일 일본 오사카 마이시마 버펄로스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훈련에 참석해 타격연습을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골든글러브를 품은 유격수답게 수비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오지환에게는 '국가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그는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도 선발 논란의 중심에 서며 웃지 못했다.

두 번째 국제대회 출전이었던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주전 유격수로 묵묵히 역할에 최선을 다했지만 대표팀의 부진과 함께 고개를 떨궜다.

2년 만에 다시 국가대표 영광을 안은 오지환에게 이번 WBC는 명예회복을 노릴 수 있는 무대다.

최정이 컨디션을 회복해 대표팀이 WBC에서 유격수 김하성-3루수 최정을 가동한다 해도, 백업으로 경기 후반 투입될 오지환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우승해도 겸손한 고진영 "넬리 코다가 나보다 잘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연패 달성... "타이를 지키려 연습 정말 열심히 해"



고진영이 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 탄중 코스에서 열린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정상에 올라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 고진영은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하며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고진영(28)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연패를 달성하고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고진영은 5일(한국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 탄중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3언더파를 쳐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1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고진영은 이날 버디 4개를 잡았지만 보기를 1개 범했다. 2위는 15언더파를 친 넬리 코다(미국)였다.

고진영은 우승 후 인터뷰에서 넬리 코다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넬리와 함께 경기를 하면 쉽지 않다. 훌륭한 선수고 나보다 잘한다.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한다"며 "3라운드부터 함께 경기를 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겨서 기쁘다"고 말했다.

고진영은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한 데 대해서는 "2연패를 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타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 주 전까지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다. 연습한 보람이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고진영은 박인비와 함께 이 대회 2회 우승자가 된 데 대해서도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고진영은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지난 해와 올해 우승을 차지했다. 박인비는 2015년과 2017년에 이 대회에서 우승했다.

'터졌다'...셀틱 오현규, PK로 스코틀랜드 리그 데뷔골

팀도 5-1 대승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뛰는 오현규(22)가 리그 데뷔골을 터뜨렸다.

오현규는 5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페이즐리의 세인트미렌 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미렌과의 2022~2023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1부리그) 28라운드 원정경기 후반 36분 페널티킥 골을 기록했다.

후반 21분 교체 투입된 오현규는 상대 알렉산드로스 고기치에 파울을 얻어낸 뒤 직접 키

커로 나서 침착하게 오른발 슈트로 골망을 갈랐다. 리그 데뷔골이다.

지난 1월 셀틱에 입단한 오현규는 지난달 12일 세인트미렌과의 스코티시컵 16강전에서 첫 골 맛을 봤다. 이번에는 세인트미렌과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올 시즌 공식전 2골을 기록하게 됐다.

이날 셀틱은 0-1로 뒤진 전반 38분 세인트미렌 찰스던이 퇴장당하며 수적 우위를 점했다.

기세를 올린 셀틱은 후반 11분 조타의 동점골, 후반 16분 알리스타어 존스톤의 역전골로



오현규의 썸네일까지 나오며 5-1 대승을 일궜다.

유럽축구 통계전문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오현규에 평점 7.2점을 매겼다. 뉴스